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성경과 함께 하는 설 연휴

성경 통독사경회 - 23일 (화), 24일 (수) 이틀간

설날연휴가 시작되는 23일부터 이틀동안 전교인 성경통독 사경회가 열린다. 나태하기 쉬운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언제 어디서 열리나?

1월23일, 24일 양 이틀간에 걸쳐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인도자는 본교회 교역자이며 참가비는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한 1만원이다. 함께 읽는 성경은 개역개정판 성경이다.

□ 어떻게 진행되는가?

오전 9시-12까지, 오후 1시-5시까지 진행되며 교역자의 기도로 시작한다. 진행자가 성경을 낭독하면 참가자들은 눈으로 보며 귀로 듣게 된다. 필요하면 색연필로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할 수 있다. 각장의 마지막절에 이르면 모두 함께 소리내어 읽고 "아멘"으로 마치게 된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에는 "0장"이라고 힘차게 외친다.

탈북 난민보호를 위한 자선 음악회

우리 교회가 시작한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한 UN청원서는 전국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950여 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제 50만 명을 더한 1000만 명 서명이 되면 세계적인 언론매체인 News Week지의 커버스토리로 다뤄지게 된다는 소식도 있다. 우리교회는 1월 27일(토요일) 오후 5시에 탈북 난민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갖게 된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외부에서 초빙되는 음악인과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인 김선일 집사, 김혜정 집사의 독창과 듀엣 그리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 플룻-첼로 앙상블, 핸드벨 연주 등이 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기대하며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전액 탈북난민본부에 전달된다. 입장권은 서점(103호)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목사복 국방부에서 군복제복으로 채택되다.

우리교회가 발의하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3년간 연구한 끝에 마련한 목사복은 국방부에서 육, 해, 공, 해병대 군복 제복으로 채택하였다. 계급장에 십자가만 붙이고 다니던 군복들이 목사복을 착용함으로써 지휘관과의 관계정립과 사병들의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케 된 것이다. 이종윤 목사는 우리나라 군복 309명 전원에게 목사복 (베드로복)한벌

(한벌당 3만원)씩 선물키로 했다. 군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기증을 원하는 성도는 비서실 (557-0691) 또는 사무국(558-1106)으로 연락바란다.

입당감사미술제 개최

기독교 문화 창달과 복음확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새예배당 입당감사 미술전을 오는 2월 21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했다. 감사와 축제 위원회 10대행사중 2번째로 열리는 이번 미술전람회(준비위원장 전기섭 장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작품 뿐 아니라 기독교 미술 동호인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다.

이번주의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But when he ,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he will speak only what he hears, and he will tell you what is yet to come.(John: 16: 13)

지난주 이모저모



9년만에 처음 열린 부흥성회 - 받을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전하신 김의환 목사님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주님을 섬길 것을 간구합니다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1.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목도	다함께
성시	시편 133편 1절 - 3절 인도자
찬송	460장 다함께
기도 (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 (다함께)
성경봉독	에베소서 5장 1절 - 14절 인도자
설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인도자
찬송	404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진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과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에 살게 하셨고 거기서 일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일반 은총만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 십자가로 설명되듯 주는 사랑도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신 것만이 아니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 주셨습니다(빌 2:5~10). 사랑은 무엇인가를 준다던가 때로는 포기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삶 속에서 참된 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2. 메시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에베소서 5장 1절~14절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5:1)는 수준 높은 요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받을 수 있으며,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유일성, 전지성, 편재성 (무소부재) 등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성품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 공의, 진실, 선함, 사랑, 동정심, 부드러운, 용서 등 인간도 소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아들이 훌륭한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고, 딸들이 자랑스런 어머니를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I. 용서하시는 사랑(Forgiving Love)을 본받읍시다.(4:32)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이를 위해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임을 알고 고백한다면 모든 것은 변화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 자신을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II. 주는 사랑(Giving Love)을 본받읍시다.(5:2)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일 뿐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는 사랑을 보여 주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우리가 가

III. 산 사랑(Living Love)을 본받읍시다.(5:2)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사랑의 생활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산 사랑이란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말합니다(엡 4장). 거짓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은 버리고 진실되게 말하며 듣는 이에게 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4:25, 5:4-7, 5:29).

감정적인 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5:26).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5:28)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것 (4:31-32)이 산 사랑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영원한 사랑을 산 사랑이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쉽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완전치 못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성도, 용서할 힘도, 주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절을 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때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받는 자(Imitator)'라는 뜻의 어원을 살펴보면 '가깝게 베끼는 자, 흉내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과 말씀을 반복하여 모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해야하며 예배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용서하는 사랑, 주는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알림 문서 수발함이 생겼습니다.

교역자실, 스테반회, 각 교육부서, 교구, 찬양대등 각 부서에서는 1층 로비에 마련된 문서 수발함에서 필요한 문서를 충-수신하기 바랍니다.-사무국

위원회에 듣는다. - 교구위원회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박두호 장로 (7교구)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2001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아픔과 고통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입고 살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높혀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여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대치동 새 예배당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12개의 교구와 188개의 다락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새 예배당 시대를 맞이하여 각 교구들이 다락방 모임을 활성화하여 교회 전체가 배가되기를 원합니다. 교구별로 선한 일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금년 교구위원회의 목표를 정하고 아래와 같이 실천하려고 합니다.

1. 교구일꾼 교육강화
2. 남, 여 다락방 모임 활성화
3. 교인 및 새 가족 관리의 철저
4. 교구별 일제 심방계획 수립
5. 매월 교구위원회 정기 모임
6. 교구실 운영(5층 510호)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 서로 떡을 떤 때,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것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땀으로 지어진 새 예배당을 채우는 일에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사회의 책임 있는 교회로서 교육과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로 새해에는 숫적 부흥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갖고 교회의 모든 일에 온 교구와 다락방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1국수련회를 마치고

오세민(초등부 교사)

특급 추위가 온 하늘을 덮쳐와도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모여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한 자신을 회개하며 연약한 저에게도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멋진 난로라 할지라도 난로가 따뜻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이지 않으며 비록 넓고 볼품없는 오래된 난로일지라도 난로가 따뜻하면 사람들은 그곳에 모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그 따뜻함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평안을 누리며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난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해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여 천국시민양성에 힘쓰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탈북난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박순봉 권사 (2교구)

예수님, 남한 땅에서 삼일동안 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삼일은 욕심입니까? 그렇다면 단지 세시간만이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북이 고향인 나에게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공산당의 학정은 신앙의 자유는 물론 인간의 최저 자유마저 몰수하였고 식량배급을 울무로 오로지 김일성 우상화에만 열을 올리고 북한 주민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공산당 치하의 삶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정치보위부의 감시를 받으며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족 친지도 모르는 사이에 체포되어 이 땅에서 소멸될지도 모르는 긴박한 때였습니다. 주님! 남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살고 싶습니다. 3년만이라도 살게 해주셔요. 아니 3개월.. 다만 3일 동안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3시간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마음에 확신시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는 이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50년이 넘도록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서울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0년전 저의 처지와 같은 북한 탈출 난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북한 탈출난민 UN청원운동은 곧 주님의 명령이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이루는 길이며 이 때를 위하여 저를 먼저 남한 땅에 보내심 인줄 믿고 오늘도 서명 판을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70고개를 넘어 몸은 쇠잔해지고 치아도 불편하여 음식섭취를 못해도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편히 쉴 수 없습니다. 공산당 학정에 떨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있는 북한 탈출 난민의 참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서명을 부탁하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모습을 대할 때 우리의 앞날이 밝고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곤 합니다. 이 서명운동이 선한 열매가 되어 탈북 난민이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거룩한 사업에 몸바쳐 헌신하고 계시는 당회장 이종윤 목사님과 본부장 김상철 장로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어통역을 맡고

김사라 집사 (6교구)

먼저 손영준 목사님의 지병으로 잠시 통역을 맡고 보니 감사뿐이다. 통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읽는 일이다. 그런데 설교 통역은 자료가 친구약 성서 전체이니 하루이틀 또는 일,이주일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어서 준비하기가 대단히 막막하다. 막상 일을 부탁 받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다. 설교에 관한 일인데다가 그럴 저력 꾸려 나간다고 해도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일은 또 다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성서를 많이 읽어두는 게 준비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인지, 설교통역일을 맡고 나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 어머니는 늘 기도와 말씀을 보신 분이셨다. 설교 통역 때문에 성서를 많이 읽게 되었다고 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통역' 그러면 무슨 신성한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주 자세하게 준비해야 비교적 속상하지 않은 통역을 할 수가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목사님께서 설교원고를 보내주는데 성서 인용문을 찾아 놓아야 한다. 모쪼록 내가 하는 일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데에 쓰임이 되기를 기도한다.

만나를 탐방

8층 스카이라운지

문형미 집사 (4교구)

서울교회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인 8층 스카이라운지 만나식당!
 식당문을 들어서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멋진 체리목의 테이블과 의자들이 자그만치 500석이란다. 전망 좋은 식당으로도 손색이 없다. 게다가 식당 양쪽의 커다란 유리창은 확 트인 전망으로 시원함을 선사하고,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식당의 어느 한 구석인들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더욱 감사하다. 만나 식당의 요리사 겸 주방장으로 봉사하시는 이영주 집사를 만나 궁금한 몇 가지를 알아봤다. 우선 이사온 소감을 묻자, "가장 좋은 것은 뒀니뒀니해도 이 흑한에 따뜻해서 좋다"며, "천막집에서 최고급 호텔로 이사왔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만나 식당의 주방엔 식기세척기, 자외선 소독기를 비롯, 최신식의 시스템이 위생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시내 유명 음식점과 비교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조건을 자랑한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만나 식당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3개나 있는데, 500명분의 국을 한번에 끓일 수 있다는데 실제로는 400명분이 공급되고 있다는 이영주 집사의 귀뜸이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면 붉은 양단자가 깔려있는, 나즈막한 단상과 피아노도 구비되어 있는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은퇴식 기념 식사가 이 곳에서 거행되었다고 한다. 왼편 배란다에 가지런히 놓인 논현동 교회에서 온 듯한 정겨운 김강독도 몇 개 보인다. 마침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올라오신, 뽕기만 해도 은혜로운 은빛 찬양대 권사님들이 줄을 서시고 당회장이종윤 목사님도 그 사이에 서시어 새해 떡국을 기다리고 계셨다. 흰색, 노란색 계란지단을 곱게 올린 떡국은 그야말로 천국의 맛이었을까? 이 멋진 창 넓은 스카이라운지 만나 식당이 더 많은 지체들로 북적대고 근동에서 전망 좋고 음식 맛 좋기로 소문나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식당이 커진만큼 봉사의 손길도 참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석의 테이블만 닦아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한다. 아직 봉사하실부서를 정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전망 좋은 스카이라운지 만나 식당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린답니다.



전망좋은 스카이라운지



더우나 추우나 변함 없이 봉사하시는 손길-더 많은 봉사자를 기다린다.



편지왔어요

김용호 (대학부)

안녕하십니까! 계급은 병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훈련병인 김용호 인사드립니다. 필승! 군생활을 한 지 2년 2개월, 너무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귀중한 시간들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을 체험케 하신 군 생활, 그 중에서도 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매우 귀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궁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미 존재했던 율법에 더 추가할 것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존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 판에 새겨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 생활을 통해 이 귀중한 작업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깊숙한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자인지를 가늠해 보는 잣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셨고,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육체된 성전으로서 성전의 기초석을 하나 하나 쌓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제1의 과제이자 초점이기에도 앞으로 이 목표만을 향해 계속 나아가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웅장한 새 예배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 지은 예배당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육체된 성전인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6일(금)에 우리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갖는다.
- 배상수 성도, 추하니 성도 (2 교구) 다녀
- 이성훈 집사, 석은정 집사 (9 교구) 득남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복규 집사, 한명순 집사 (10 교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월23일, 24일 열리는 성경통독사경회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4. 1년 계획한 것 성취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학도

